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청 원 번호	22
-----------	----

2025년 2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대표
성북구청장 이승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외 26만명

나. 소개의원 : 김원중의원(국민의힘, 성북 제2선거구)

다. 접수일자 : 2025년 2월 6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2월 7일

마.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평가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2024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계획이 좌초됨
-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은 43만 성북구민의 염원으로, 청원은 ‘강남북 차별없이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강북권을 자족가능한 미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
- 이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 사업을 재추진 해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하고 반드시 사업을 재추진해 주기를 청원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원안가결(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1) 교통정책과-2366('25.2.14.) '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의견제출'

- 지침²⁾상 예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만 예타 재요구 가능
- 경제성 제고를 주안점으로 선형변경, 정거장 조정 등 다각도로 대안 검토 중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청원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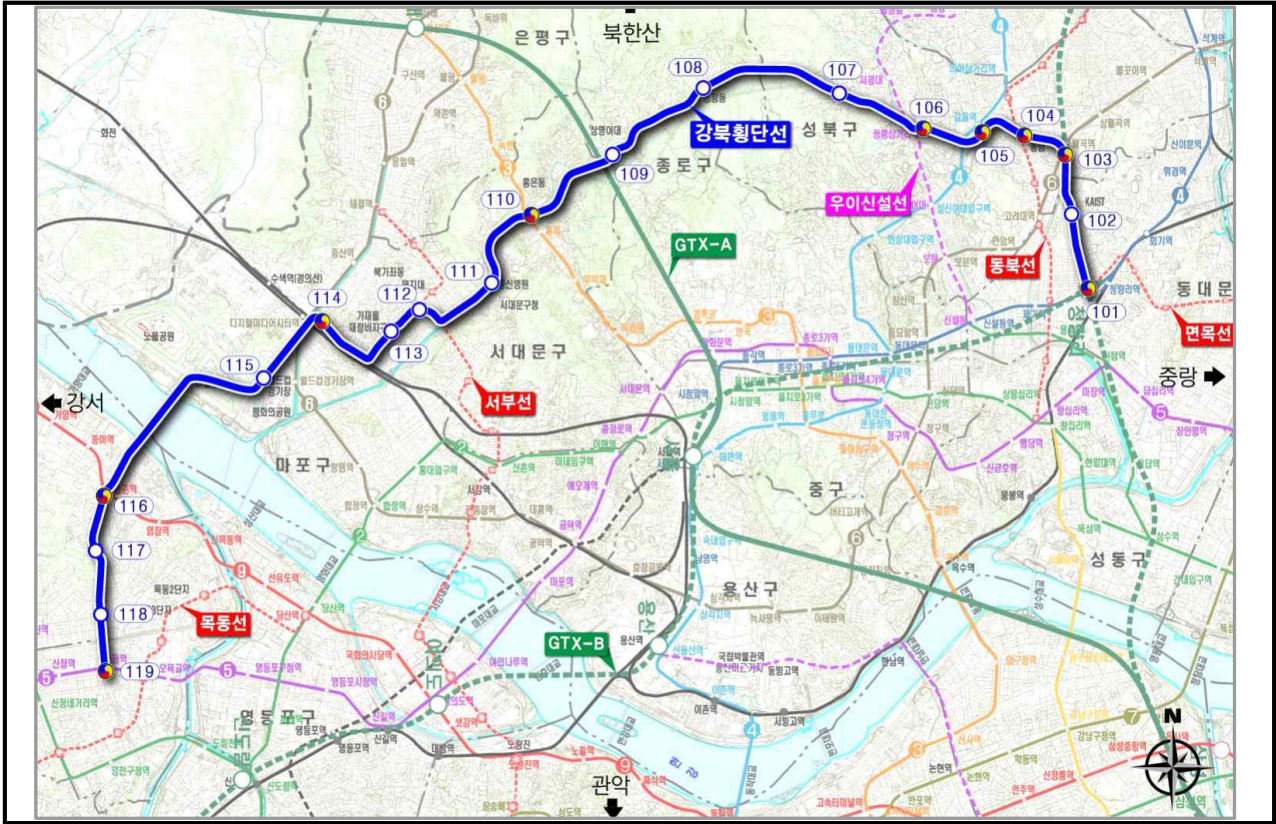
- 동 청원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원안 그대로 반영 후 재추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강북횡단선 추진현황

- 강북횡단선(청량리역~목동역, 총 연장 25.72km, 정거장 19개소, 차량기지 1개소)은 지형 제약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강북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부순환로 지하를 따라 강북을 좌우로 횡단하는 경전철을 통해 지하철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임

※참고1: 강북횡단선(에타안)



-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3)에 따라 '19년 2월 수립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중 하나로 '20년 11월 국토부에서 승인·고시4)한 바 있으나, 지난 '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탈락5)한 바 있음

3) 「도시철도법」 제5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2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5) ‘청량리~신내역’ 면목선 에타통과.. 강북횡단선은 탈락 (뉴시스, '24.6.5.)

※참고2: 강북횡단선 추진현황(예비타당성조사 기준)

- 노 선 명: 강북횡단선(도시철도)
- 구 간: 청량리역 ~ 목동역
- 사업내용: (연장) 25.72km, (정거장) 19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2조 6,063억원(시비 15,638 국비 10,425 ※ 단가기준:2020년)
- 추진현황
 - '19.02.20.: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강북횡단선 신규노선 선정)
 - '20.11.17.: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 '21.10.01.: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KDI)
 - '24.05.09.: 종합평가회의
 - '24.06.05.: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탈락)
 - '25.02. 현재: 강북횡단선 대안 검토 중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

■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선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음
- 동 청원은 '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원안 재추진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

획(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⁶⁾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서울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을 ’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도시·광역철도 건설·운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 수도권 도시철도망 간 효율적 연계체계 통합기획 등을 사유로 ’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음
- 강북횡단선은 ’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⁷⁾ 당시 지역균형발전효과로 우선순위 노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낙후된 서북지역과 강북지역 등을 강서 지역과의 연계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와 시민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형조정, 역사 조정 등 대안 검토 중⁸⁾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원안을 재추진하는 청원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6) 교통정책과-10785(’24.12.)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 방안 연구용역 준공기한 연장 계획(2차)”

7)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서울특별시, ’20.11.

8) 서울시,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추진·강남북 균형발전..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 서울특별시, ’24.7.10.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⁹⁾상 예비타당성조사 재요구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붙임1 참조

[붙임1]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

- 채택 의견
 - 동 청원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원안 그대로 반영 후 재추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강북횡단선(청량리역~목동역, 총 연장 25.72.km, 정거장 19개소, 차량기지 1개소)은 지형 제약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강북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부순환로 지하를 따라 강북을 좌우로 횡단하는 경전철을 통해 지하철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서대문구,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임

- 동 청원은 '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원안 재추진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강북횡단선은 '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 당시 지역균형발전효과로 우선순위 노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낙후된 서북지역과 강북지역 등을 강서 지역과의 연계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와 시민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예비성타당조사 탈락 이후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형조정, 역사 조정 등 대안 검토중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원안을 재추진하는 청원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 예비타당성조사 재요구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22	접수연월일	2025. 2. 6.
청원인	주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성명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대표 성북구청장 이승로 외 26만 명	
소개의원	김원중	소속위원회	교통
건명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교통		
<p>○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평가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으나, 2024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계획이 좌초됨-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은 43만 성북구민의 염원으로, 청원은 '강남북 차별 없이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강북권을 자족 가능한 미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 이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 사업을 재추진 해줄 것을 청원함			